

# “트럼프, 철회 원한 건 전날 발표 대북제재”

블룸버그 통신 보도

“추가제재 애초에 없어

당국자들이 설득해 막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철회’를 언급한 제재 대상은 실제로는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해운사 2곳을 상대로 단행된 재무부의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으나 행정부 당국자들이 그를 설득해 가까스로 막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현지시간) 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단행된 제재를 없애려고 했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접도록 설득한 뒤 상황 수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트윗에 대해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정작 당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로 돌아가기 위해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서 전용기를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버트 무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와 관련, 공모 혐의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가 진행되던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인사가 말했다.

미정부 측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 ‘중국 해운사들에 대해 가해진 제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해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초 성명 출

처를 특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발표 이전에 구체적 조치에 대해 별도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재무부가 적절한 제재 부과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한 인사가 전했다. 재무부의 제재는 지난주 열린 NSC(국

가안보회의)의 주제였고, 당시 미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인 로버트 블레어는 대통령이 이번 제재 발표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경고했으나, ‘슈퍼 매파’ 존 볼턴 NSC 보좌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안다고 반박했다고 2명의 인사가 전했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재무부 발표 직후 트윗을 통해 제재를 공개적으로 반겼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러한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일 내 예정돼 있던 추가 대북제재’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미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 했다가 참모들이 이를 급하게 주위 담으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내놓은 셈이 된다.

유관기관 협의 등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부처의 발표 내용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하루 만에 뒤집으려다 참모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22일 트윗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발표 후 6시간 만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지 하루가 안 돼 이뤄진 것이어서 북측을 달래 판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한 유화 제스처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 美 10대 소년 땅콩 알레르기 탓에 대한항공·델타 제휴 비행기서 쫓겨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제휴해 운항한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려야 했다 고 소년의 가족이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애틀랜타 지역 방송 WSB-TV에 따르면 라케시 파텔의 15세, 16세 두 아들은 최근 할아버지를 문병한 뒤 아버지의 임시 직장과 거처를 방문하기 위해 애틀랜타에서 서울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하고 있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심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제휴사인 대한항공과 함께 운항한 서울발-마닐라행 항공편에는 땅콩이 기내 간식으로 제공되게 돼 있어 이들은 두 가지 선택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파텔 가족은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에서 내리든지, 땅콩이 서빙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냥 타고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알레르기가 심한 10대 소년은 다른 선택이 없는지 요구했으나 게이트 직원이 셔츠를 잡아당겨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WSB-TV는 전했다.

결국 이 소년은 서울에서 다시 애틀랜타행 항공기를 타고 돌아왔다. 파텔 가족은 항공사 측에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WSB-TV는 “대한항공이 땅콩-음식 알레르기는 항공산업의 이슈 중 하나이고 어떤 항공사도 알레르기가 전혀 없는 환경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고 실현 가능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옆 사람이 땅콩을 먹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연합뉴스

## 中쓰촨성서 대규모 셰일가스전 발견

1247억㎥ 매장...곧 개발 착수

중국 서부 쓰촨성에서 막대한 매장량을 갖춘 셰일가스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중국 과기일보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化)은 최근 쓰촨성 내이장(內江)과 즈공(自貢) 일대에서 셰일가스 1247억㎥가 매장된 가스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노펙은 올해 말까지 이곳을 연간 셰

일가스 10억㎥를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말 북부 보하이만에서 이반과 유사한 규모의 가스전이 발견됐을 때, 중국 매체들이 1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셰일가스 생산지역에서는 시추 작업과 관련해 생태계에 대한 우려 및 지질학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 美 요금 올린 넷플릭스, 인도선 반값 요금제

최근 미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큰 폭의 요금인상을 단행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인도에서는 반대로 ‘반값 요금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데이터 사용자가 급증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이 많은 인도의 현실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넷플릭스의 파격 마케팅 전략이다.

27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월 250루피(약 410원)짜리 요금제를 시범 출시했다.

이전에 시범 도입된 요금제 수준은 기존 최저 요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요금제 가입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만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고 HD급 이상 고화질은 제한된다.

기존 최저 요금제와 비교하면 TV 시청이 제한되는 점만 제외하면 다른 서비스는 거의 같다.

넷플릭스 측은 로이터통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려는 이 등을 대상으로 여러 옵션을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억7천600만명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창업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3~18%의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8달러짜리 가장싼 기본요금제가 9달러로 올랐고, 프리미엄 플랜은 14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됐다. /연합뉴스

## 자유조선,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확인...“FBI와 정보공유”

“습격 아니라 초대 받은 것”

美 국무부 “우리와는 무관”

반(反) 북한단체 ‘자유조선’ (옛 천리마 민방위)이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자유조선은 26일 오후(세계표준시 UTC 기준) 홈페이지에 올린 ‘마드리드에 관한 팩트들’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일은) 습격이 아니었다”며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내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했던 것 뿐”이라며 대사관 침입을 인정했다.

단체는 “우리는 대사관에 초대를 받았으며 언론 보도와는 달리 억압되거나 맞은 사람도 없었다”며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성이 사무실로 보이는 곳의 벽에 걸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때려 바닥에 내던지고 액자의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도 담겼다.



지난 2월28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 입구에 스페인 경찰차가 정차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 단체는 “FBI와 상호 비밀유지 합의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며 “그 합의는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은 엄청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정부는 개입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까지 우리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하노이 회담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 정부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묻는 기자에게 “미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캠프 前고문 사면 요청

“특검팀이 유죄 인정 강요”

로버트 무러 미국 특별검사가 끝내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하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옛 대선캠프 고위 관계자가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트럼프 캠프 외교 정책고문은 26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변호사들이 나를 위해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며 “만약 사면을 받는다면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파도풀로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하던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들과 접촉한 일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돼 작년 12월 12일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았던 파파도풀로스는 이날 발간된 저서를 통해 특검팀 검사들로부터 유죄인정 합의를 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특검팀 검사들이 만약 유죄인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 외국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파파도풀로스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